

고학력 성인학습자 교육동기의 현상학적 이해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Motives of Higher-Educated Adult Learners

Na-Rae Bae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동기에 관한 것으로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현상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사전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이 진술하는 진술하고도 생생한 언어적 자료를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본질을 파악하여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학력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육동기의 분석은 나아가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도 연결이 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동기를 살펴본 결과, 사례1과 사례2 모두 목표지향형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의 본질을 살펴본 결과, 사례1은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 세부적인 교육의 본질 및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다. 사례2의 경우, 교육의 동기에서 제시한 목표와 달리 학습지향형의 특징이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교육을 학습한 후 사회복지에 대한 의미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례1은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영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가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2는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을 설명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넷째, 온라인대학은 오프라인대학에 비해 공간적, 시간적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ducational motivations of highly educated adult learn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by highly educated adult learners and to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of this study used phenomenological method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tivations for education, both case 1 and case 2 show goal-oriented feature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ature of education, case 1 was able to grasp the in-depth meaning of education and the nature and meaning of detailed education. In case 2, a learning-oriented characteristic is shown, unlike the goals presented in the motivation for educat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in meaning of social welfare after learning about social welfare, case 1 wa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various areas of social welfare, and case 2 was able to explain the expertise of social welfare workers and the poor social welfare practice field. Fourth, an online university cited spatial and temporal flexibility, compared to offline universities, and explained that it has characteristics of self-directed learning.

Keywords : Educational Motives, Higher-Educated Adult Learner,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elfare Major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KonYang Cyber Univ.)

email: victory0302@kycu.ac.kr

Received November 12,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Revised December 1,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1. 서론

21세기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의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 인식개선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계속학습에 대한 요구로 평생학습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변화로 과거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지식의 유통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지식이나 정보가 구 정보로의 전환이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학령기에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끊임없는 학습은 생존에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로부터 도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재교육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변화하려는 시도와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더 이상 학습과 교육은 '학령기 젊은이들'만의 과업은 아니다. 성인학습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교육은 미래사회의 교육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신지식의 빠른 획득과 응용 및 적용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정보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습득하기 위해 재교육의 욕구가 커지고 있고, 사이버대학은 빠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연령 및 직업,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1][2].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2001년에 원격대학에 분류되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되었다. 이후 2007년 고등교육법(법률 제8638호)개정에 의거해 고등교육기관으로 형태를 전환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하였다.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의 시작은 2001년이며, 해당 해에 전국 9개 사이버대학교가 개교하며 본격적인 원격대학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9개교의 총 입학정원은 6,100명이고, 재학생 정원은 6,220명이였다. 13년이 흐른 2013년에 사이버대학의 수는 21개교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체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33,410명이고, 재학생 인원은 99,246명으로 2001년의 전국의 사이버대학교 첫 개교 당시에 비해 대학의 수는 3배 이상 늘었고, 재학생의 인원은 개교 때와 비교했을 때, 15배 이상 증가 하였다. 2017년 사이버대학교 수는 2013년과 비교해 학교의 수와 입학정원은 동일하지만, 재학생수는 105,549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3]. 이러한 증가세는 건국 이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역사상 전무후무한 눈부신 성장을 보인 것이다.

사이버대학의 성장과 발전은 대학교육의 현 상황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과거교육과 미래교육이라는 두 축으로 교육을 해석하게 되었다. 과거교육은 획일화되고 경직되었으며, 서열과 배타성이 컸다 라면, 미래교육은 다양성을 중시하고, 유연하며 협력하고 포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주문제작화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의 주체에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자 중심의 집어넣는 교육에서, 미래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꺼내는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한다. 다시 말해, 과거 교육은 '결과'를 주입하는 교육에서, 미래의 교육은 '과정'을 경험하는 교육으로 변화하였고, 과거에 학생은 지식의 소비자였으나, 미래는 지식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말하며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육방식으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설명하였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고도화 되어가는 시대적 요구 및 교육적 요구에 대응해 보다 전문적이고 시대 흐름을 반영한 트렌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교육 수요자 스스로가 수업의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학생수요자 목적에 맞는 교육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점 등 사이버대학의 다양한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교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대학에 입학자들 가운데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늘고 있다. 2018년 교육부 통계자료[3]에 따르면, 사이버대학교에 등록한 고학력자의 비율은 2014년에 총 등록인원 24,804명 중 17.2%였으며, 2016년에는 총 등록인원 26,256명 중 19.2%가 고학력 성인학습자로 보고되었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교의 평생학습 교육을 언급하며, 고학력 전문가의 재교육 역할을 강조하고 사이버대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 집단인 그들이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 참여 혹은 교육동기 체계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육 참여자로서의 특성 연구, 교육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10][12][13]. 그러나 고학력자 성인학습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사전 연구로서 본격적인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소규모의 방법론적 실험단계이다. 사전연구는 연구 수행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가 학술적인 연구주제가 되며, 연구자의 현실적인 관심이 연구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전연구는 추후 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연구를 통해 구성을 제대로 갖춘 본 연구를 수행한다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대학의 미래 사회복지교육적 측면에서의 교육자료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향후 한국 사회복지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는데,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적연구보다는 질적 연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경우 교육의 본질은 개인별 상황과 정체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인 경험이므로 양적으로 계량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다양한 학습자 욕구와 정부의 평생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상황을 인식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의 본질을 파악하여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알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고학력자에 대한 이해

고학력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수학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고학력자에 대한 기준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1980년대만 해도 고학력자 비율이 낮았던 시기로 대졸자를 통칭해서 고학력자라 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고학력여성의 취업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 고학력자는 2년제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칭하였다[10].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져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아야 고학력자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인 2018년 송영선[22]의 연구에서 고학력자의 정의를 대학교 졸업자라고 정의하여 고학력자의 정의는 여전히 시대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통계청[11]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박사학위 취득자는 매년 늘어 2020년 외국인을 제외하고 박사학위자는 9103명이라고 발표하였다. 과거와 비교하여 고학력의 학력상의 기준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자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다.

2.2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성인학습자는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학습욕구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구조화된 교육활동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이다[1].

학습은 생애 주기적으로 학령기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식의 도야와 인격적 성장, 사회화 과정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고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에 성인은 학습이 마무리된 이미지가 강하였다. 현대에는 연령의 구분 없이 계속학습으로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이 지식기반사회의 성인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세가 될 정도로 더 이상 낮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학습하는 인간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앎과 배움의 시대적 개념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성인학습자는 개인이 학습시간과 양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12]. 또한 그들은 각자 개인의 현재 삶의 일상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삶에 필요한 학습목표들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학습에 참여한다[2]. 또한 학습에 일반적인 기본 개념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 중심적인 학습, 미래 지향적 삶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직업 간 직무 향상을 위한 연계교육에 기초한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많은 성인학습자는 그들만의 확고한 정체성이나 가치관, 인지적 태도를 가지고,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성인학습자는 스스로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며 각자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요구를 빨리 알아차리며 자신에게 맞는 학습형태를 찾아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인 패턴을 보인다[13]. 또한 그들은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시간을 투자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학습하지만 자신의 목적과 교육적 욕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습에 있어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교육을 참여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인지적 기능저하의 신체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투자를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거 학습경험을 연결 지어 현재의 학습에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이나 방법, 시간 등을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자발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과제나 내용을 학습하는 것에 더 열정을 느끼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는 일반 학습자와 달리 배움에 대한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본인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중요한 의미이며 학습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기반성적 특징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3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 동기에 대한 이론 검토

성인학습자의 교육동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 Houle[9]의 세 가지 유형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Houle은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22명을 대상으로 심층연구를 하였고, 연구결과를 '탐구하는 마음(The Inquiring Mind)'이라는 책으로 엮어 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학습자의 교육의 동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목표지향형(Goal-Oriented)유형이다. 목표지향형의 교육동기를 지닌 사람은 특별히 지정한 자신만의 목표가 있거나 본인이 갈망하는 욕구를 해결을 위해 교육활동에 참여한다고 한다. 목표지향형의 경우 교육 참여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둘째, 활동지향형(Activity-Oriented) 교육동기를 지닌 사람으로

활동 참여의 순수한 목적의 본질에 관심을 두며,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데 근본적인 관심이 있는 유형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지루함, 단조로움, 고독감, 소외감 등을 떨쳐내기 위해 교육활동에 참가한다. 그들에게 교육 참여는 타인과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학습지향형(Learning-Oriented)은 교육 참여는 지식과 배움의 성장을 돕고, 교육은 내면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동기를 준다. 그들은 학습의 장점에 강한 매력을 느껴 평생 동안 교육을 지속한다는 특징도 있다. 이들은 교육 참여가 매우 즐거운 경험이며 교육을 통해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한다.

Houle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육동기의 세 가지 유형론을 시작으로 많은 학자들이 교육 참여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실증적으로 동기를 분석한 연구[14][15][16]들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와 참여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17][18][19][20][21]. Boshier[14]는 Houle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참여 척도(EPs: Educational Participation Scale)를 개발하여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을 사회적 교제 유형, 외부적 기대유형, 지역사회 봉사 유형, 직업 개선 유형, 도피 혹은 자극유형, 인지적 흥미 유형 등 6가지로 밝혀냈다. Burgess[15]또한 교육 참여 동기 척도(REPS: Reason for Educational Participation Scale)를 개발하고 교육동기유형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적 성취 요인, 개인적 목표 성취 요인, 사회적 목표 성취 요인, 종교적 목표 성취 요인, 현상 도피 요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요인, 형식적 요구에 따르려는 요인 등 7개의 참여 동기 요인을 밝혀냈다. Morstain & Smart[16]는 Boshier에 의해 개발된 교육 참여 척도를 적용하여 교육 참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 유형, 외부 기대유형, 지역사회봉사유형, 직업개선 유형, 도피 혹은 자극 유형, 인지적 흥미 유형 등 6가지 유형을 검증해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운실[17]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에 대해 국내에서 첫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결과 성인학습자들은 학습동기가 6가지 요인으로 구분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관계 형성 요인, 외적 기대 충족 요인, 사회적 인정 동기, 현상으로부터 도피와 변화요인, 직무상의 성과달성과 전문성 배양 동기, 지식적인 흥미 등 6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성인학습자들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으로 부터의 도망치고 싶어 하는 마음과 변화를 좇아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가 가장 높

았으며, 인지적 관심과 흥미 추구, 직업적 개선 및 성취 및 전문성 기르기 위한 동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인정받기 위한 동기 등의 순으로 학습참여 동기의 순위를 설명하였다. 권두성[18]은 Houle의 세 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5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해 한국 성인의 교육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성인학습자 학습참여 동기의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학습지향형 동기유형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들은 앎과 배움의 본래적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일상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인지적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미래에 삶을 대비하고 보람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교양을 습득하고 싶어서 등이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활동지향형 참여 동기로 나타났는데 다수가 모이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싶어서, 환경과 배경이 유사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기 등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는 목적지향형 동기요인에 따른 필요성으로 기술이나 지식 습득, 국가 공인 전문자격증 취득, 사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서 학습활동에 참여 한다는 동기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타인기대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이나 지인 혹은 근무상의 관련인들에 의해 교육의 요청이나 권위로 학습을 시작하거나, 사회적으로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매일의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을 얻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정희[19]는 Houle의 학습참여 동기 유형을 바탕으로 대학평생교육에서의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를 분석한 결과, 성인학습자들은 학습지향형 동기 유형이 가장 많았고, 목적지향형, 활동지향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숙원[20]의 연구에서도 Houle의 학습참여 동기 유형요인을 기반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 등록한 성인들을 연구한 결과 학습지향형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활동지향형 동기, 목적지향형 동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연구자들이 Houle의 참여 동기 유형이론을 토대로 관련연구들을 수행한 결과, 학습참여 동기로 학습지향적 동기와 활동지향적 동기, 목적지향적 동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해 반해 외국의 경우[14][15][16]는 학습참여 동기가 실직상태에서 직업을 변경하기 위해, 승진 및 직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를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진로향상을 위한 학위취득이 학습요인으로 목적 지향적 참여 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습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도출된 결론은 첫째, 학습에 참여한 동일한 성인학습자에게도 참여 동기가 단일동기가 아닌 복합적인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습참여 동기요인은 모두 변함없이 한결같은 고정화된 참여 동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인학습자들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과정 초기에 학습 참여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성인학습자들은 각기 다른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학습참여 동기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4 현상학적 이해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인식하고 있는 생활세계 속에 함께 들어감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시선에서 생각하는 경험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유혜령[4]은 현상학이란 19세기 중후반 물리주의, 자연주의, 역사주의 등 실증주의 학문의 반대 입장의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며, 현상학은 특정한 철학적 사상적 구조이기 이전에 우리 속에 이미 존재했던 사고방식 또는 형태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현상학은 일상의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현상학은 학자들에 의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소개 되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에서 유래되었고, 현상학을 연구하는 탐구방식인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변용한 것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상학은 원래 철학적 개념이다. 철학을 우리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는 연구에 적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철학적 관념 영역에서의 논의를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에 접목하다 보면 논리의 비약적인 축소나 단절이 나타난다고 한다[4]. 그러므로 관념과 실천 두 영역의 연결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해내느냐에 따라, 철학과 우리의 삶과 실천의 융화에 기초한 질적 연구의 실제적인 탐구방식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5].

다시 말해, 현상학적 연구에서 관심은 인간의 '의식'이다. 하지만 의식은 그 용어상 직접적으로 기술되거나 설명이 되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향해간다는 것'이기 때문인데, 현상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향성(Intentionality)'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험과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무엇을 지향해 가고 있는가를 따라가면서, 그 현상이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체험의 세계로 인식되고 드러나는가를 탐색하고 학술적으로 기술하려는 '기술적'

(Descriptive) 방법론이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축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6]. 즉, 인간이 경험한 현상이 드러내는 바를 기술적 방법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이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중요한 부분은 개인마다 다른 생활적 경험, 의식, 삶의 세계 본질 등을 객관적으로만 파악해야 한다는 실증주의적 철학과 신념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직접적이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고 해석하려 한다는 데에 있다[7]. 따라서 생활사건 속에서 일상사와의 상호작용하고 사건들을 응당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전제나 이해 스타일을 재해석해 보는 일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7]. 이러한 이유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연구주제를 발견하고 혹은 연구문제를 생성하는 것부터 연구는 시작된다고 한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가 경험한 생생한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면서 경험과정과 진술 내용을 깊이 있고 풍부하게 기술하고 이를 해석해 낼 수 있게 하며, 우리 삶의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것과 현상이 존재하는 현상학적 생활세계의 차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분석은 지오르기(Giorgi), 콜라이찌(Colaizzi), 반 매넨(Van Manen)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방법을 개발한 학자들 중 지오르기(Giorgi), 콜라이찌(Colaizzi), 반 매넨(Van Manen) 등 그들의 이름을 따서 지오르기 방법, 콜라이찌 방법, 반 매넨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오르기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콜라이찌 분석방법은 연구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우선적인 중점을 둔다. 반 매넨의 연구방법은 현상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두고 분석[5]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석,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고학력 성인학습자 2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0년 9월 1일~2020년 10월 5일까지이며, 개별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반구조적 질문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대학 교육 참여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교육 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오프라인대학과 온라인대학을 비교 해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면담을 구성하였다. 면담과정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 녹음을 하였으며 이후 구술 내용을 전사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례1은 50세 남성으로 화학을 전공한 군인이다. 사례2는 45세 여성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외래교수이다.

[사례1]50세 남성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사립대학인 Y대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육군사관학교의 전공은 화학이다. 석사의 전공은 화학이다. 박사의 전공은 통계학이다. 현재 육군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역을 준비하며 서울에 위치한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하여 졸업을 하였다. 부인과 두 명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으며, 종교는 기독교이다.

[사례2]45세 여성으로 심리학을 전공 하였으며, 서울 사립대학인 C대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대학에서 외래교수를 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사이버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였다. 남편과 두 명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으며, 종교는 무교이다.

4.2 교육의 동기

학습 참여 동기 유형을 설명한 Houle[9]은 학습목적의 동기는 성인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에는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Hole 이론의 학습 참여유형과 비교해 보면 사례1은 '재취업'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을 선택 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지향형의 특징이 나타났다. 사례2는 '전공을 바꿔볼까 해서'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사례2 역시 직업에서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얻기 위해 학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목표지향형의 특징이 나타났다.

[사례1] 학습의 동기는 자격증을 따는 건데, 일단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할 하면, 입학을 해서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학습 동기가 되겠지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겠지요. 사이버대학에 들어온 계기가 자격증 취득이지요. 미래의 재취업이었어요. 정년이 다가오니까 정년 이후의 삶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입학을 했지요.

[사례2] 사회복지관련 전공을 바꾸어 볼까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공이 사회복지와 아예 동떨어져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과목을 몇 개 씩 이수한 적이 있어요. 전공을 바꾸기 위해 학부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4.3 교육의 본질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육의 동기보다는 심도 있고 본연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사례1의 경우는 교육의 본질을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직장 내에서도 내용을 알면서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의 동기와는 다소 다른 목표 지향형의 특징을 보인다. 교육의 동기에 나타난 사례1은 단순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을 선택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본질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교육에 대한 심층적이고, 세부적이며 핵심된 의미의 말을 하였다. 사례2의 경우 ‘배우게 되고 (중략) 학생입장도 되어보기도 해요.’ 라는 말에서 교육의 동기에서 보여준 목표지향형의 특징과는 달리 학습지향형의 특징을 교육의 본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사례1] 자격증을 따는 것은 표면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자격증을 따서 그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으로써 그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석사를 할 때는 일단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고, 그냥 단지 석사 공부라는 접근을 했었는데 석사 공부를 하다보니까 통계 쪽에 관심이 생겨서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지요. 관심이 생겼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제 직장 내에서 통계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2] 어릴 때는 부모님의 권유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공부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학습의 본질 따위는 몰랐어요. 그냥 석사 박사를 했었지요. 지금은 내가 필요하니까 찾아서 공부하게 되요. 성적이요. 시험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나도 사람이라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거나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사이버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다른 대학에서 강사를 하다보니까요 이 교수는 이렇게 수업을 하구나 자료를 이렇게 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학생입장도 되어보기도 해요. 지금에서야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수업을 내가 조절한다는 느낌이 이런 거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4.4 사회복지교육 후의 변화된 사회복지 인식

사회복지교육을 접한 뒤, 사례1은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영역을 학습 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확장된 사회복지역할을 말할 수 있었다. 사례2는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였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언급을 하였다. 사례1과 사례2의 면담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회복지 수업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질적 수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복지사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1] 사회복지교육을 하고 나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지요. 그전에는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을 개념적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뭐 이런 정도로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공부하고 나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갈래로 지역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하는 일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어떤 성격의 일들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지요. 공부를 통해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데요.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전문적으로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2]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대해서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렇지만, 처우가 열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알게 되었네요. 사회복지를 하려면 다른 학문들의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찬찬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한 심리전공도 수업을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회복지실천부분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도 있고요.

4.5 오프라인대학과 온라인대학의 비교

오프라인대학과 온라인대학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사례1과 사례2 모두 오프라인대학에 비해 온라인대학은 공간적, 시간적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전통적 교육방법과 비교 했을 때,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며 장점을 설명하였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학습량을 조절하며 교육하였고 복습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설명하였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성인학습자들은 정규시험과 학점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겪는다[1]는 결과와는 달리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지만, 그 부분조차도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고 말해 학습과 시험 모두 본인이 조절하는 철저한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1]오프대학과의 차이점은 장점부터요. 오프대학은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가야 되는데, 사이버대학은 2주간의 시간이 있으니, 여유가 있지요. 여유가 있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바쁜 시간에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여유가 있을 때 학습을 하니까 아무래도 학습의 양을 개인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 좋은 것은 한번 들었던 것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의 단점은 딱히 글썽요. 어려운 점을 느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수업을 같이 하는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때는 시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학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과목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기존에 대학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도요. 다른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례2]나는 시간강사를 하기 때문에 오프대학을 갈수가 없어요. 온라인 대학이 나에게서는 적합하네요. 내가 편안한 시간에 듣고, 공부하고요.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으니 좋고요. 역시스런 모임과 만남은 질색이거든요.

시험에 대한 부담이요? 시험부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점수가 좋으면 좋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이버대학에서 좋은 학점 취득하기가 만만치 않더군요. 나의 경우에는 사이버대학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아쉬운 점은 사이버대학의 입지와 위상이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사이버대학교의 위상이 높아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5. 결론

본 연구는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동기에 관한 것으로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현상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사전 연구의 목적이 있다.

사전연구는 앞으로 전개될 본 연구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연구자로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사전연구를 통해 명확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향상할 수도 있다[8].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이 진술하는 진술하고도 생생한 언어적 자료를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탐색하기보다는 본질과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지닌다[5].

본 연구를 통해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에 대한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다양한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연구를 위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이버대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한 성인학습자 2명을 사전 조사 하였으며, 교육의 동기, 교육의 본질, 사회복지 교육 후 변화된 사회복지 인식, 오프라인대학과 온라인대학의 비교에 대한 심층질문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동기는 사례1과 사례2 모두 목표지향형의 특징이 나타났다. 둘째, 교육의 본질에서 사례1은 교육에 대한 심층적이고 더 세부적인 교육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고 사례2의 경우 교육의 동기에서 보여준 목표지향형의 특징과는 달리 학습지향형의 특징을 교육의 본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복지 교육을 접한 뒤, 사례1은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영역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 있었다. 사례2는 열악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넷째, 오프라인대학과 온라인대학의 차이를 질문한 결과 사례1과

사례2 모두 온라인대학은 오프라인대학에 비해 공간적, 시간적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수 있다는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동기에 관한 사전 연구로 실시되었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풀어낸 연구이다. 연구를 통해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본질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며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진행 될 연구를 통해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생활세계체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전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교육의 동기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상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학력정도에 따른 교육의 본질이 상이함을 이해하고 수업을 계획하고 구성할 때 교육의 본질이 학력정도에 따라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전공교육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그들 안에서 사회복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교육비용이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특징이 있다.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해 온라인 교육은 교수자와 동료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에서의 상호작용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Na Rae Bae, "A Study on the Motivating Factors Affecting the Middle-Aged People in Choosing Major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 pp96-102, 2019.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9.20.1.96>
- [2] Na Rae Bae,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irection of Social Work Field Practicum - Focused on Cyber Universit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2, pp197-211, 2018.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197>
- [3] 2018 KERIS ISSUE REPORT Analysis of cyber university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and overseas case studies,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8.
- [4] Hae-Ryung Yeu, "Logic and method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Max van Manen's perspectives of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Vol. 5, No. 1, pp1-20, 2015.
- [5] Nam-In Lee,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for Reviewers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20, No.1, pp1-14, 2019.
DOI : <https://doi.org/10.22284/qj.2019.20.1.1>
- [6] Keun-Ho Lee, "Phenomenology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 mode of dialectic study between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f the phenomenon",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 10 No 2, pp41-64, 2007.
DOI : <https://doi.org/10.17318/jae.2007.10.2.002>
- [7] Byoung-uk Ki, "Clarific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Basic and Methodological Concepts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 Methods for Improving Acceptability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Finding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0, No 1, pp 25-44, 2010.
DOI : <https://doi.org/10.32465/ksocio.2010.20.1.002>
- [8] Chuan-yang Yu, Yu-jin Kim, Mi-kyung Seo, "Experience of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by a novice researcher in social science - Based on practicing the pilot study -",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Vol.4 No.1,pp1-20,2019.
DOI : <https://doi.org/10.21487/jrm.2019.03.4.1.1>
- [9] Houle, C. O. (1961).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10] Soon-Young, Kim. "Current Status of High-Education Women's Employment and Prospects for Life Employment", Issues in Feminism, Vol 12, pp43-101, 2002.
- [1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mepage:<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KOSIS National Statistical Portal Site. <http://kosis.kr/index/index.do> .Results of May 29, 2019.
- [12] So-yoon Kim, Seong-Woo Choi, "A Study on the Facilitation Experience of Mothers for Children's Self Directed Learning" Lifelong Education and HRD Study, Vol.11, No.3, pp 67-95, 2015.
DOI : <https://doi.org/10.35637/lehrd.2015.11.3.003>

- [13] Young-Sun Chung, Hyun-Young Kim, Sun-Woo Ka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rrelations of Learning Strategies,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ult Learn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8, No 2, pp.23-41, 2010.
- [14] Boshier, R.(1971). Motivational Orientations of Adult Education Participants: A Factor Analytic Exploration of Houle's Typology.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 21, No 2, pp 3-26, 1971.
- [15] Burgess, Paul. Reasons for Adult Participation in group Education Activities, Adult Education, Vol 10, No 1, 1971.
- [16] Morstain, B. R. & J. C. Smart.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courses : A multivariate analysis of group differences. Adult Education, Vol 24, No 2, pp 83-98, 1974.
- [17] Un-Shil Choi, "Analysis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by the adult educational programs in Korea ", Ewha Womans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18] Doo-Seung Kwon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through the Survey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The Education Department.
- [19] Jung-UI Lee,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Participation in Social Education in University : Focused on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7.
- [20] Suk-Won Lee,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Adults Learner's Persistence in University Attache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Ewha Womans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02.
- [21] Ar-Ryeon Kim,"A Study on Learning Outcome Perceived by Adult Learners in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Journal of a Study on Lifelong Education, Vol 10 No 2, pp 129-165, 2004.
- [22] Young-Sun Song, "The Mediating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on the Influence of Higher Education Adult Learners' Participatory Motivation on Self-Efficacy",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24, No 2, pp 31-55, 2018.

배 나 래(Na-Rae Bae)

[중신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7년 9월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연구교수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교육컨텐츠, 문화산업